

## 권진규 ‘부조(浮彫)’의 이전 및 복원작업

김 주 삼

호암미술관 문화재 보존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가실리 204

### Transferring and Restoration of Kwon's 'Relief'

Joo Sam Kim

*Ho-Am Conservation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204 Kasil-ri, Pogok-myun, Yonin-si, Kyungki-do, KOREA*

#### 요 약

벽화나 건물벽에 장식한 부조작품들은 건축물의 일부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타 예술 작품과는 달리 현재의 위치에서 보존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 작품의 보존을 위해 적절한 보존환경이 제공되는 곳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작품들을 이전해야 할 경우 충격이나 진동이 불가피하고 이들의 재질이 일반적으로 부서지기 쉽다는 것을 고려하여 작업 중 훼손을 방지하는 조처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 고에서는 주택 재개발 사업에 따라 철거위기에 놓여 있는 권진규 ‘부조’를 대상으로 부조작품의 이전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특히 훼손 방지차원의 보호조치와 포장방법을 중심으로 한 이전 전과정과 복원작업을 소개하였다.

The wall painting and Relief type sculpture were a part of an architecture. Therefore they had better to be preserved in situ, differing with other works of arts. But we confronted inevitable cases to transfer them in appropriate place to conserve. And considering their fragility and a potential danger such as a vibration and shock in process of transfer, we had to do the preventive treatments to prohibit unexpected deteriorations. In this paper, I mention the transferring process when Kwon's 'Relief' was faced to be removed by reconstruction program. A preventive treatment and packaging method were referred in priority.

#### 1. 서 론

건물내부에 있는 벽화나 부조작품이 철거될 상황에 처했거나 오지에 위치하고 있어 사람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보존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부득이 하게 이전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때에는 작품이 가지는 장소성의 중요성과 보존윤리상 타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이 과정 중에 작품의 손상이 어느 정도 예상되므로 가급적 피해가 최소가 되도록 철저한 조사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언급하게 될 권진규의 ‘부조’를 통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전을 해야 하는 작품의 처리과정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 작품은 주택 재개발사업에 따라 철거가 예정된 건물에 설치되어 있었다. 유족들은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삼성문화재단에 기증의사를 밝혀 호암미술관 보존연구소는 1997년 1월 이전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작품은 서울 성북구 정릉4동 254-148호에 소재한 작가동생의 집벽면을 장식하기위해 1960년대에 제작된 ‘부조’로서 흙벽 위에 시멘트를 바른 후 석고로 제작되었다. 미술계 일각에서는 제목도 없고(따라서 제목으로 작품의 양식 명을 사용하였다.)작가의 서명도 없어 작가가 제작한 단순한 장식물로 분류하고자 하는 의견들도 있다. 그러나 작가가 제작한 것이 확실하고 특히 작가의 작품 중에 가장 큰 규모(263×227 cm)이므로 최소한 작가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리라고 판단된다. 참고적으로 권진규(1922-73)는 한국 근대 미술사에 중요한 족적을 남긴 조각가이다. 당시로서는 조각재료로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던 테라코타와 건칠 기법을 이용하여 그만의 작품성을 표현하여 후학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작업실에서 자살로 짧은 생을 마감하여 아쉬움을 남긴 작가이기도 하다.

이 글의 내용은 크게 ‘부조’를 이전하는 작업과 이전 후 미술관에서 다시 복원하는 과정을 서술하였다. 이 작품은 흙벽에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시멘트를 바르고 난 후 다시 석고로 돌출부를 만든 작품인데 시멘트와 흙벽사이의 접착성 약화로 인해 일부가 결손되었고 파손이 진행 중에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이전 작업은 이동과 작업 중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장기간의 정밀한 상태조사와 연구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작품 표면에 웨이싱(facing)과 나무판을 이용한 작품 구조의 보호가 강구되었다. 이러한 보호조치 후에 견고하지 않은 작품의 후면의 흙벽들을 제거하여 이동 중에 작품의 하중을 줄이고 작품이 흙벽과 함께 파손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였다. 그 후 다시 후면을 석고로 보강하고 나무판넬을 부착하여 이전 작업을 완료하였다. 복원작업은 작품을 보호하고 있는 판넬과 웨이싱을 제거하고 작품 후면에 새로운 지지대를 부착한 후 크리닝과 결손부에 대한 메움작업 및 색맞춤을 수행하였다.

## 2. 작업과정

### 2.1. 작품의 이전 작업

이전작업에 앞서 사전조사를 할 당시 이미 부조가 위치한 정릉 4동 일대는 주택 재개발

에 따라 주위의 거의 모든 주택들이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 시 당국에 유족의 간곡한 건의로 이 집만 철거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전 작업도 최대한 10여일 안에 끝내야 하는 시간적인 제약도 있었다. 특히 1월의 혹한기에 작업이 진행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시행 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충분한 조사와 함께 완벽한 이전계획 수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으며 일시불란한 팀웍이 요구 되었다. 따라서 외부의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문화재 보존에 많은 경험이 있는 호암 미술관 보존연구소의 서양화 팀과 도토리 팀으로 작업 인원을 구성하였다.

이전 작업은 우선 정밀 상태조사와 사용될 재료의 테스트를 시행하였다. 특히 부조를 이전한 후 바로 집이 철거되고 그 위에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이므로 향후 최초의 위치와 상태를 가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진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 이전 작업의 진행방법은 Mora, Philippot의 'Conservation of Wall Painting' 벽화 이전에 대한 내용 중 Strappo 방식과 Stacco 방식을 참고하였으나 표면의 요철이 심한 부조작품을 입을 감안하여 보조적인 보강 작업을 병행하였다.

### 2.1.1. Facing작업 및 표면 보호

이전작업은 기존 벽체에서 작품을 떼어 내는 작업이므로 이 과정 중에 발생하는 충격이나 진동으로부터 작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이 작품처럼 비교적 크고 부서지기 쉬우며 표면의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휘이싱은 물론 추가적으로 보다 견고한 지지대가 필요하다. 휘이싱에 사용될 접착제는 충격이나 진동에 작품의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접착력이 있어야 하고 사용 후 색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특히 제거가 용이하고 작품표면에 잔여 성분이 남지 않도록 환원성이 뛰어나야 하므로 유럽에서 벽화의 휘이싱 작업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교성분을 첨가한 밀가루풀인 소위 Colleta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휘이싱 재료는 요철이 많은 작품표면을 모두 덮을 수 있도록 충분한 유연성이 있어야 하고 우수한 접착 강도와 사용될 풀과 잘 접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지를 사용하였다. 또한 보조적으로 작품의 무게와 돌출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5겹의 석고붕대를 휘이싱 위에 부착하여 견고성을 높였다. 또한 후면의 흠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과 진동을 흡수하고 향후 운반 시 작품을 보호할 목적으로 작품과 동일한 크기의 나무판넬을 석고붕대로 보강된 작품 표면과 10 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세운 후 그사이에 우레탄폼을 투여하였다.

### 2.1.2. 작품 후면의 흠벽 제거

작품의 지지대로 사용된 20 cm 두께의 흠벽들은 부분적으로 부서지고 있는 상태이고 시

멘트부분과 접착력이 상실된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운반시 진동으로 인해 무너져 내릴 경우 작품을 파손시킬 우려가 있었으며 특히 자체 하중으로 인해 그 위험성이 더욱 증대 될 것으로 판단 되었다. 일차적으로 재질보강을 통해 흠벽의 일부를 남겨 두는 것도 고려하여 Paraloid B-72 (5%, toluene)로 테스트한 결과 침투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실효성이 없었다. 또한 향후 후면 보강제와 접착력을 고려하여 시멘트에 묻어 있는 흠을 거의 모두 제거 하였다. 흠벽의 제거는 상단부터 트롤과 거친 솔을 이용하여 진행하였으며 구멍이 나 있거나 흠벽제거시 발생한 미세한 결손부와, 파손우려가 있는 곳은 아크릴계 이멀전타입의 접착제인 Plextol B-500(Toluene으로 부풀림)과 부직포(polyester)를 이용하여 보강하였다.

### 2.1.3 후면 보강

흠벽을 제거한 후 작품을 지지해줄 후면 보강제의 선정을 위해 몇 가지 재료가 고려되었다. 석고를 비롯하여 폴리에스터 수지, 마이크로발룬(microballoon)이 배합된 에폭시 수지 등이 검토되었다. 우선 폴리에스터 수지는 견고한 재질이긴 하나 용액상태이므로 흘러내려서 수직면에 작업이 어렵고 작품에 스며들어 색변화를 일으킬 우려가 있었다. 에폭시 수지 역시 단단한 재질이며 가볍다는 장점이 있으나 적용 시 약화된 작품 후면에 부착을 위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위험성이 있었다. 반면 석고는 무거우며 면이 클 경우 부러질 우려가 있으나 굳는 속도가 빠르고 굳은 후 견고하며 체적변화가 없다. 또한 부착시 작품에 압력을 주지 않아도 되므로 작업시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석고는 흑한기에 야외작업을 해야 하는 이전작업의 경우 합성수지와는 달리 영하의 기온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검토 결과 후면 보강제로 석고를 선택하여 작품의 후면을 평면이 되도록 발라 주었다. 그 위에 운반 시 충격으로 인한 석고가 파손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우레탄발포 시 석고와 중간 매질역활로 우레탄 제거를 용이하도록 하기위해 2겹의 석고봉대를 부착 하였다. 그 후 앞면과 동일하게 운반시, 손상을 줄이기 위해 뒷판넬을 설치후 우레탄폼을 발포하였다.

### 2.1.4 운반

판넬로 작품의 앞뒤가 보강된 작품은 벽체에서 제거하기 앞서 작품의 하단을 제외하고 가장자리 및 상단의 벽을 제거하고 각목으로 판넬을 서로 부착하였다. 판넬을 포함한 작품의 총중량은 250 Kg 정도에 달하였으나 작업장의 입지 조건과 운반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게차를 사용하지 않고 목도를 이용하여 운반차량 까지 이동하였다. 차량이동 시에도 판넬은 세운 상태로 고정하여 수장고에 입고하였다.

## 2.2. 복원작업

미술관에 옮겨진 작품은 기후적으로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97년 5월에 복원작업을 시작하였다. 복원작업의 목적은 향후 보관관리는 물론 전시를 위한 조치로서 크게 운반시 작품 보호를 위해 사용된 판넬과 웨이싱(facing) 재료를 제거하는 작업, 작품의 구조를 보강하는 작업, 그리고 표면의 크리닝과 색맞춤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 2.2.1 보호 판넬 제거 및 작품후면의 구조 보강

작품의 구조보강에 앞서 이동 중에 작품 보호를 위해 부착되었던 후면의 판넬과 우레탄 폼을 제거하였다. 구조보강의 벽체를 대신하여 작품을 지지해 주는 역할을 대신해 주어야 하므로 견고해야 하고 또한 작품의 취급을 위해 무게가 가벼워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다. 따라서 각목을 이용한 구조물을 제작하여 부착하였다. 작품과 목조 구조물을 접착하기 앞서 철제 그릴과 약간의 석고로 보강하였고 그 과정 중에 목제 구조물을 부착하였다. 구조물과 작품의 후면의 공간은 우레탄 폼으로 채워 하중을 줄이도록 조치를 하였다. 골조가 틀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미관상의 이유로 베니어합판을 부착하여 마감하였다. 그 후 앞판넬과 웨이싱을 제거 하였다.

### 2.2.2 크리닝

웨이싱을 제거한 후 웨이싱과 작품표면이 곰팡이로 심하게 오염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곰팡이의 발생 원인은 웨이싱 때 사용된 아교와 밀가루풀과 웨이싱 당시 종이 가 완전히 마르지 않았거나 석고에 남아 있던 수분이 우레탄 폼 사이에서 잔존하여 발생하였던 것을 판단되었다. 작품 표면은 다양한 곰팡이에 오염되어 미관상 작품의 훼손이 심각하여 크리닝이 요망되었다. 크리닝을 위해 야외에서 충분히 말린 후 솔을 이용하여 표면의 곰팡이를 제거 하였다. 그 후 비이온계 디터전트(non ionic detergent)를 이용한 세척과 스칼펠을 이용하여 제거를 시도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시멘트 부분의 손상이 우려되었다. 곰팡이가 핀 부분은 염료나 안료이나 유기물질이 없으므로 차아 염소산 나트륨(Sodium Hypochlorite, NaOCl)를 습포방식으로 곰팡이 얼룩 부분에 덮은 후 살균을 하는 동시에 부분적인 표백작업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차아염소산 나트륨으로 곰팡이 얼룩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었으며 색변화는 물론 물리적인 이상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후면에서 결손부위를 보강하기 위해 사용한 Plextol B-500이 깨어진 틈새로 새어나와 작품표면에 묻어 있었으나 에틸알콜과 크실렌을 사용하여 부풀린 후 벗겨 내었다.

### 2.2.3 메움작업 및 색맞춤

결손 부위는 mastic kit(호분과 수용성 합성수지의 혼합물)로 채워주고 표면의 질감을 내 주었다. 작품의 취급과 전시를 위해 작품 가장자리에 알루미늄 판으로 프레임을 만들었으며 메움작업 위에 아크릴 물감과 수채화 물감을 혼용하여 색맞춤을 해주었다.